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7.1.(수) 10시

## “재외동포 인재, K-바이오 현장에서 꿈 키운다”

- 재외동포청·인천시·인천대학교, ‘동포 청년 인재 양성 K-바이오 캠프’ 신설
- 첨단 생명과학 교육부터 기업 현장 체험까지...학업·취업 연계 지원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)

- 바이오 분야에 관심 있는 재외동포 청년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마련됐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인천광역시, 인천대학교와 함께 바이오 분야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재외동포 청년 10명을 선발해 ‘동포 청년 인재 양성 K-bio캠프’를 신설하고 6월 30일(화) 입교식을 열었다.
  - 이번 캠프는 우수한 동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과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, 국내 학업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  - 특히 인천시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(i-RISE) 사업과 연계해 재외동포청, 인천광역시, 인천대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첫 동포 청년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- 참가자들은 7월 10일까지 9박 10일 동안 인천대 생명과학기술대학에서 바이오의약품, 항암 신약 소재, 유전자 진단 등 첨단 바이오 분야 교육과 실습에 참여한다.
  - 또한, ‘동아에스티’, ‘싸이티바 코리아’, ‘보로노이’ 등 인천 지역 대표 생명과학 기업을 방문해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, 진로와 취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.
  - 이와 함께 인천 주요 명소 탐방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모국을 이해하고 국내 생활을 체험한다.

- 입교식에 참여한 참가자는 “평소 한국에서 공부하고 진로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, 실제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.”라며, “이번 K-바이오 체험 캠프를 통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직접 경험하고, 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다.”라고 말했다.
  
- 강모세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은 “이번 K-바이오 캠프는 우수한 동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해외 우수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	책임자	과 장 강모세 (032-585-3280)
		담당자	사무관 김주동 (032-585-3281)
			주무관 홍혜원 (032-585-3282)

